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영어
교재의 읽기 지문에 대한 글의
소재 및 종류 비교



2014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명 화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영어
교재의 읽기 지문에 대한 글의
소재 및 종류 비교

지도교수 오 준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명 화

김명화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주 심 교육학 박사 조 윤 경 (인)

부 심 문 학 박 사 송 호 림 (인)

부 심 응용언어학박사 오 준 일 (인)

목 차

ABSTRACT	i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중등 학교 교육 과정	5
2.2 수학능력시험 및 EBS 연계	6
2.3 글의 종류	8
2.4 선행 연구	9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2
3.1 연구 대상	12
3.2 연구 과정	13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5
IV. 결과 및 논의	17
4.1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EBS 교재의 글의 소재 분석.....	17
4.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EBS 교재의 글의 종류 분석.....	27

4.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의 연계성	33
IV.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39



표 목 차

<표 1> 2015학년도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분석.....	7
<표 2> 연구 대상 영어 1, 2 교과서	12
<표 3> 연구 대상 EBS 수능 연계 교재	13
<표 4> 제 7차 교육과정 영어과 소재목록표.....	14
<표 5> 글의 종류와 특징.....	15
<표 6> 영어 1 교과서 글의 소재 분석.....	18
<표 7> 영어 2 교과서 글의 소재 분석.....	19
<표 8> 수능특강 글의 소재 분석	21
<표 9> 인터넷 수능(1),(2) 글의 소재 분석	23
<표 10> 영어 1 교과서 글의 종류 분석	27
<표 11> 영어 2 교과서 글의 종류 분석	28
<표 12> 수능특강 글의 종류 분석.....	30
<표 13> 인터넷 수능(1),(2) 글의 종류 분석.....	31

그 립 목 차

<그림 1> 영어 교과서 글의 소재 비교 분석	20
<그림 2> EBS 수능 연계 교재 글의 소재 비교 분석	25
<그림 3> 영어 교과서 글의 종류 비교 분석	29
<그림 4> EBS 수능 연계 교재 글의 종류 비교 분석	32
<그림 5>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 글의 소재 연계성.....	33
<그림 6>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 글의 종류 연계성.....	35



Comparison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EBS Reading Materials Based on Topic and Text Type

Kim, Myoung-hw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well high school English 1, English 2, and EBS English coursebooks reflected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terms of topic and text type. The method used is to compare and analyze 188 reading texts from English 1 and English 2, and 501 texts from EBS coursebooks published in 201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high school English 1 and English 2 are evenly applied as recommended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Education, while EBS course books are too concentrated on some subject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ing text types, this study has found that EBS textbooks are far heavier weighted in some areas than high school English 1 and 2.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rge differences exist between English high school 1 and 2 and EBS reading materials. Therefore, as is logically expected students who

have consistently studied with high school English 1 and 2 will be unfamiliar and over-challenged by EBS coursebooks.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영어 교육학에서 평가와 관련된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역류효과(washback)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류효과란 평가도구가 교수와 학습에 미치는 효과(Hughes, 1989)로서 학습자의 학습 방향이 시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최근 Bachman과 Palmer(1996)는 역류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단지 개인의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역류효과에 대해서 Buck(1988)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험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 그 시험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학습 활동이 결정되어 진다고 한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습에 있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70%라는 상당한 연계성을 지닌 EBS 수능 연계 교재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개인적인 학습 활동은 물론 학교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역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영어 학습과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올바르게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2015 EBS 수능특강(이현우, 2014: 1) 서문에는 "본 교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 소재의 글과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상의 어휘범주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므로 EBS 수능 연계 교재는 교육과정이 제시한 다양한 소재와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고루 반영하여 출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교실에서 접한 수험생인 고3 학생들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Kim과 Oh(2002)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접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와의 연계 정도를 체감하지 못할뿐더러 교과서 읽기 지문에 비해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이 훨씬 읽기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정규 영어 학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영어 학습에 큰 차이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비단 어휘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강의하는 지문 해석을 듣거나 해설지에 있는 본문 해석을 읽어도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핵심 주제가 잘 와 닿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영어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학습된 글의 소재나 글의 종류가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글의 소재나 글의 종류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하게 느껴지고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기본개념을 활용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과서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려는 경향이 점차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비중만 높아지게 될 뿐이다. 따라서 공교육이 비정상화되며, 정부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수험생의 양적, 질적 부담만 오히려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에 대한 바람직한 역류효과와 현 수험생이 체감하는 영어 학습의 심각한 차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그에 따른 학습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70% 연계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표본을 보여주며 수능 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제시한 틀 안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을 따르고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과제를 토대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독해 지문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더 나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나아가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글의 소재 면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2.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글의 종류 면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3.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교육과정이 제시한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는가?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이나 연구 내용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영어 학습 영역 중 한 부분인 읽기 영역의 지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 관한 분석 결과라 보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교과서 및 당해 연도의 EBS 수능 연계 교재 중 일부분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전체 교재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중 글의 종류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상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나 분류 방법이 없어 그에 해당하는 해외 논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분류한 글의 소재와 글의 종류는 연구자 한 사람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집된 자료 해석상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나온 영어지문의 소재 및 종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계획 및 EBS 연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중등학교 교육과정

제 7차 영어 교육과정(교육부, 2008)과 제 7차 재개정 영어 교육과정(교육부, 2011)에 따르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하고, 둘째,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 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언어 재료 면에서 자연스러운 언어활동을 위하여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에 대한 각 영역별 참고사항을 명시해 두었다. 이 중 소재에 대해서는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영어과 소재목록표’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2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EBS 연계

2.2.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 3월 26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교육부, 2014)에 따르면 출제 기본 방향 중 첫 번째 출제 원칙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학습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출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밝혔다.

둘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분석·종합·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 교과서의 영어 1, 영어 2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2015 통합형 수능영어 영역 학습안내(교육부, 2014)에 따르면 일상생활 관련 소재를 비롯하여 인문, 사회, 예술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내용을 유추해 보는 방식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출제 범위는 영어 1, 영어 2 교과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고 덧붙였다.

2.2.2 EBS 수능 연계 교재 영어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서 출제된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는 대한민국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라면 누구나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EBS 교재의 문제에 대한 70% 연계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했다.

<표 1> 2015학년도 EBS 수능 연계 대상 교재 목록

영역	교재명
영 어	(고교듣기) 고교영어듣기
	(수능특강) 영어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 1 - 종합편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 2 - 틀리기 쉬운 유형편
	(EBS N제) 영어 280제
	(수능완성) 영어
총	6 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연계 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수준이고,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라고 명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밝힌 연계 유형으로는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 제시되었다.

2.3 글의 종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영어과에서는 글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해외논문을 통해 글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을 조사했다.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글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ramley와 Pätzold(1992)가 제시한 글의 종류와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 Gramley와 Pätzold(1992)는 글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의미론적인 기능으로 나뉜다고 밝히며, 이를 이야기(narrative), 묘사(descriptive), 지시(directive), 설명(expository), 논쟁(argumentative)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이야기 형식의 글은 현실세계의 사건과 시간에 관련된 것으로, 뉴스기사, 소설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먼저’, ‘둘째는’ 등과 같은 주로 사건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동사나 부사를 본문에서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묘사 형식의 글이란 사람의 위치나 공간에서의 물체와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글은 오른쪽이나 왼쪽, 혹은 앞쪽이나 뒤쪽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말해주며, 서술하고 있는 상황의 무대나 배경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묘사에서는 위치 동사나 부사적 표현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시 형식의 글은 구체적인 미래의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명령문이나 정중한 권유나 청유형 문장이 주로 사용되며, 대안적, 대체적 형식을 띄고 있다.

넷째, 설명 형식의 글은 현상들에 대해 식별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 명시, 요약, 에세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글은 분석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태 동사와 인식적 형태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행동 및 특징을 나타내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논쟁 형식의 글은 글을 읽는 독자의 신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특징적 행위를 타하는 협상적인 발언으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는 광고와 지시가 이러한 형식의 글에 속하며, 중립적이고 평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2.4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의 연계 정책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는 많은 반면,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영어 읽기 영역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EBS 교재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어휘 난이도에 대한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밝힌다.

먼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정보림(2012)은 개정 7차 고등영어 읽기 본문의 난이도 비교에서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까지 단계적으로 개정 시행된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8종의 읽기 본문에 대한 학년 간 난이도를 코퍼스 지수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그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의 네 가지 영역에서 학년별로는 난이도 면에서 적합하지만, 출판사별 학습량과 어휘 난이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현(2014)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비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의 70% 연계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코퍼스 프로그램과 문서 난이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교과서의 어휘 규모, 난이도 및 문서 난이도를 비교하였는데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문서 난이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박영주(2011)는 읽기 지문의 구문 구조 및 이독성을 중심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난이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비해 더 복잡하고 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신정록(2013)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영어 독해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 지문의 이독성 비교를 통하여 영어 2 교과서 3종의 이독성 평균 수치는 6.74~6.98 정도로 서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해 반해 2011년과 2012년 EBS 수능특강 외국어 영역의 평균 이독성 수치는 각각 7.39와 7.53으로 교과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임을 증명했다. 또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평균 이독성 수치는 7.39이지만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7.62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EBS 수능 영어 교재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조근호(2013)가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수준에 대해 코퍼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는 2012년 EBS 수능 연계 교재 중 읽기 영역과 21종 교과서 읽기 본문에 대한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 둘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분석 결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준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수준보다 상당히 높으며,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어휘수가 많아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희(2012)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의 읽기 영역에 나타난 소재 분석을 통해 4종의 영어 교과서 소재를 분석한 결과, 한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교육부가 제시한 19개의 소재 항목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교과서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난이도나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영역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험생들이 느끼게 되는 이러한 차이가 단지 어휘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기에 기존의 접근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도, 즉, 글의 소재와 글의 종류 면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비교 분석해보는 방식의 연구도 꼭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등학교 영어 1, 영어 2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에 대한 글의 소재와 글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드러난 연계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영어 1, 영어 2 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읽기본문인 Read에 제시된 총 188개의 읽기 본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교재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영어 1, 2 교과서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총단원수	총지문수
영어 1 교과서 (English 1)	권오량 외	금성	2007	10	10
	이찬승 외	능률	2007	10	10
	김성곤 외	두산동아	2007	10	10
	이민호 외	민중서림	2007	12	12
	민찬규 외	중앙교육	2007	11	11
	김길중 외	지학사	2007	11	11
	김덕기 외	천(김)	2007	10	10
	이재영 외	천(이)	2007	10	10
	신정현 외	YBM	2007	10	10
	권오량 외	금성	2007	10	10
영어 2 교과서 (English 2)	이찬승 외	능률	2007	10	10
	김성곤 외	두산동아	2007	10	10
	이민호 외	민중서림	2007	12	12
	민찬규 외	중앙교육	2007	11	11
	김길중 외	지학사	2007	11	11
	김덕기 외	천(김)	2007	10	10
	이재영 외	천(이)	2007	10	10
	신정현 외	YBM	2007	10	10
총계				188	188

이와 더불어 EBS가 2014년 1월과 3월에 각각 발행한 수능특강에 출제된 전체 독해 지문 총 255개, 인터넷수능에 제시된 전체 독해 지문 총 246개를 대상으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EBS 수능 연계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총단원수	총지문수
수능특강	이현우 외	한국방송공사	2014	33	255
인터넷 수능(1)	황종배 외	한국방송공사	2014	20	126
인터넷 수능(2)	이희경 외	한국방송공사	2014	16	120
총계				69	501

3.2 연구과정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인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글의 소재 면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소재목록표(교육부, 2011: 93)를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재목록표에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한 내용, 상호작용에 적합한 내용,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을 활용

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제 7차 교육과정 영어과 소재목록표 (교육부, 2011: 93)

소 재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 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 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3.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5.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인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글의 종류 면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도구로는 Gramley와 Pätzold(1992)가 제시한 글의 종류에 대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5> 글의 종류와 특징

글의 종류	특 징
이야기	사건 및 시간에 관련된 것(뉴스 기사, 소설, 등)
묘사	사람이나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와 관계된 것
지시	구체적 미래 행위와 관련된 것(명령, 권유, 등)
설명	현상 식별 및 특징 설명된 것(정의, 요약, 등)
논쟁	독자의 신념 변화와 관련된 것(질책, 협상, 등)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인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교육과정이 제시한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각각의 표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정리하여 분석했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각 단원에서 제시된 총 188개의 읽기 본문을 대상 연구 자료의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교과서 본문자료 파일을 다운받아 수집했다. 그리고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은 EBS 홈페이지에서 대상 연구 자료의 본문 파일을 다운받아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출판사와 저자명, 단원 수와 지문 수에 따라 분류되어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제시했던 <표 2>와 <표 3>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분류가 끝난 교과서는 각 단원에 대한 읽기 본문과 지문의 제목을 따로 정리해 두고, 이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독한 후, 본문에서 주로 다룬 소재를 확인했다.

글의 소재 선정 과정에서 금성출판사에서 발행된 영어 1 교과서와 영어 2 교과서의 경우 읽기 지문의 소재가 본문파일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도 해설지에 나와 있는 소재를 참고했다. 이렇게 선정된 소재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목록표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 단원이나 해당 지문의 문제 번호를 표기했다. 그 이후 표기된 단원 수를 모두 합해 빈도수로 표시하였다.

글의 종류에 대한 분석도 글의 소재 분석과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를 출판사와 저자명, 단원과 지문별로 분류하여 각 본문 전체를 정독한 후, 앞서 제시했던 <표 5>에서 정의하고 분류한 5가지 글의 종류 중 가장 부합하는 것을 찾아 해당 단원이나 해당 지문의 문제 번호를 표기했다. 그리고 표기된 단원 수를 모두 합해 빈도수로 표시하였다. 글의 종류 선정 과정에서 몇몇 교과서의 본문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이 두 가지 이상의 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된 글의 형식을 위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 중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의 일부 강이 장문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속해 있는 경우, 한 개의 지문으로 취급하여 분석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IV. 결과 및 논의

4.1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EBS 교재의 글의 소재 분석

4.1.1 고등학교 영어 1, 2 교과서에 대한 글의 소재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인 고등학교 영어 1, 영어 2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가 글의 소재 면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 1, 영어 2 교과서의 읽기 본문을 각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소재를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 선정된 각 본문별 소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목록표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 단원이나 해당 지문의 문제 번호를 표기한 후, 이를 합하여 빈도수로 표시하고 전체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였다.

먼저, 영어 1 교과서에 대한 글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1 교과서는 대부분 한 단원 당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표 6>에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별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9개의 소재들을 다양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교과서 읽기 지문의 소재는 한 두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재 목록에서 중복된다하더라도 같은 소재 목록 안에서도 다양한 소재가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각 교과별로 활용된 소재는 중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5, 9, 14번 소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재가 약간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영어 1 교과서 글의 소재 분석¹⁾

소재	금성	능률	두산	민중	중앙	지학	천김	천이	YBM	계(%)
1		1		1	1	1	1		1	6(7)
2	1		1				1			3(4)
3					1	1		1		3(4)
4					1			1		2(3)
5	1		2	2		2	1	1	1	10(11)
6	1		1		1					3(4)
7		1	1	1		1	1	1		6(7)
8	1	1	1	1		1			1	6(7)
9	1	1	2	1	2	1	1	2		11(12)
10			1	1	1	1	1			5(6)
11	1	1			1	1		1	1	6(7)
12	1	1		1			1		1	5(6)
13	1	1		1					1	4(5)
14	2	3		1	1		2	1	1	11(12)
15				1	1	1	1		2	6(7)
16				1				1		2(3)
17					1					1(1)
18			1			1		1	1	4(5)
19										0(0)

1)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읽기 소재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소재 항목의 숫자는 <표 4>에 제시된 소재목록표의 개별 항목을 지칭하며 자세한 내용은 1. 개인생활 2. 가정생활과 의식주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6. 취미, 오락, 여행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9.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 소개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13.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15. 예술, 문학 16. 근로, 진로 문제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관한 내용이다.

<표 7> 영어 2 교과서 글의 소재 분석²⁾

소재	금성	능률	두산	민중	중앙	지학	천김	천이	YBM	계(%)
1		2		1	1	1		1	1	7(8)
2			1			1	1			3(4)
3						1				1(1)
4			1	1			1	1		4(5)
5	1	1		2	1	2				7(8)
6			1				1			2(3)
7		1			1		1		1	4(5)
8			1		1	2		1		5(6)
9				1			1		1	3(4)
10								1		1(1)
11		1	1	2	1				1	6(7)
12	1	1	1		1	1	1	1	1	8(9)
13	2	1	1	1	1	1		1	1	9(10)
14	1		1	1	1	1	1	1	1	8(9)
15	1	1		1	1	1	1	1	1	8(9)
16	2		1	1				1		5(6)
17	1	1					1		1	4(5)
18	1	1	1	1	2		1	1	1	9(10)
19										0(0)

둘째, 영어 2 교과서에 대한 글의 소재 분석 결과, 영어 2 교과서의 경우에도 단위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한 단위마다 대부분 하나의 소재가 활용되었음을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교과서로 보았을 경우, 영어 2 교과서는 고른 소재별 분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어 1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 2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소재별 편중 현상은 역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사용된 것으로

2)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읽기 소재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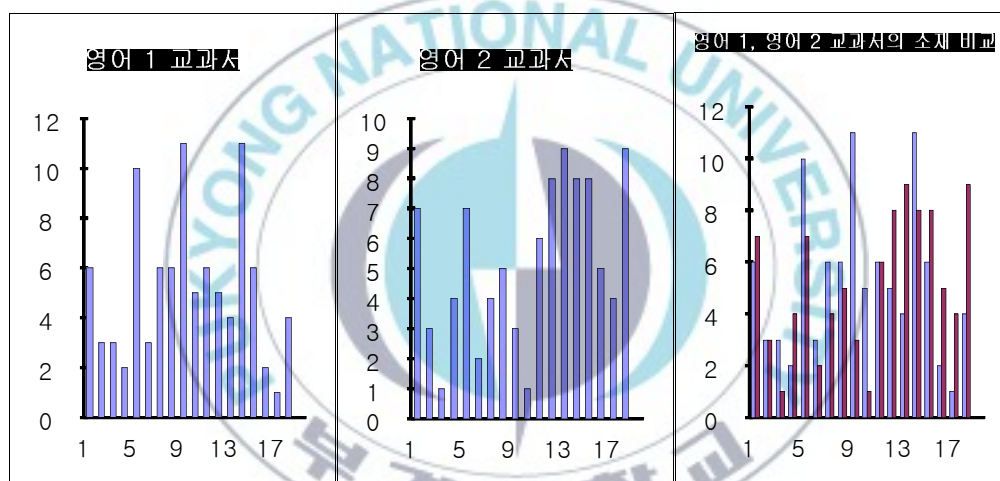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소재 항목의 숫자는 <표 4>에 제시된 소재목록표의 개별 항목을 지칭한다.

보이는 12, 13, 14, 15, 18번 소재는 예절, 질서, 환경 보전, 봉사, 역사, 지리, 과학, 우주, 예술, 문학 및 합리적 사고력에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영어 1, 영어 2 교과서의 소재 분석표를 그래프화해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영어 교과서 글의 소재 비교 분석3)



영어 1, 영어 2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9개의 소재를 고르게 반영했지만 일부 몇몇 소재에 조금 더 집중되었다. 특히 영어 1 교과서가 영어 2 교과서 보다는 5, 9, 14번 소재에서 조금 더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어 1 교과서와 영어 2 교과서 둘 다 19번 항목인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소재는 전혀 활용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3) 세로축은 소재별 빈도수이고, 가로축은 각 소재가 나타내고 있는 소재목록표의 항목번호이다. 세 번째 그래프의 앞 쪽 막대는 영어 1 교과서의 소재별 빈도수, 뒤 쪽 막대는 영어 2 교과서의 소재별 빈도수를 나타낸다.

4.1.2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글의 소재 분석

첫째, 수능특강의 전체 단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수능특강 글의 소재 분석⁴⁾

소재	1~10강	11~20강	21~30강	테스트편	계(%)
1	4	5	0	4	13(5)
2	1	3	1	3	8(3)
3	5	1	2	0	8(3)
4	2	7	3	9	21(8)
5	7	2	4	7	20(8)
6	2	1	3	0	6(2)
7	6	6	0	4	16(6)
8	1	0	1	0	2(1)
9	3	4	0	4	11(4)
10	1	1	1	0	3(1)
11	0	0	0	0	0(0)
12	4	5	0	4	13(5)
13	4	1	4	3	12(5)
14	29	11	12	21	73(29)
15	3	1	2	0	6(2)
16	0	0	1	0	1(0)
17	1	1	2	0	4(2)
18	13	4	4	16	37(15)
19	0	0	0	0	0(0)

4)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읽기 소재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소재 항목의 숫자는 <표 4>에 제시된 소재목록표의 개별 항목을 지칭한다.

수능특강도 영어 교과서와 동일한 수집 과정과 분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수능특강은 교과서와 달리 단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밀한 분석을 위해 10장씩 나누어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한 지문에 2~3개의 문제가 함께 출제된 장문 유형의 지문은 한 개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EBS 수능특강을 10장씩 나누어 살펴보면, 1~10장까지의 소재 편중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해당 구간에서는 14번 소재가 총 29회 (34%)나 활용된 반면, 11, 16, 19번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20장의 경우 1~10장 보다 14번 소재의 편중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8, 11, 16, 19번 역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21~30장은 수능특강 교재의 구조적 특성상 소재편으로 각 강별로 한 소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9개의 소재 중 여전히 14번 소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면서 소재 면에서 많이 치우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능특강 테스트 편은 수능특강의 학습을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정리 및 실전 대비의 목적을 가지고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면에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테스트편의 경우 14번 소재가 21회 (29%)나 등장하는 분석 결과는 이를 명백히 증명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편에서 3, 6, 8, 10, 11, 15, 16, 17, 19번 소재는 단 한 문제에서도 활용되지 않았음을 <표 8>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테스트편의 소재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능특강의 소재별 빈도를 정리해 보면 지문에 가장 많이 활용된 소재는 소재목록표에서 제시된 14번으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칭한다. 특히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지문 중 약 30%인 73개 지문이 모두 14번 소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4, 5,

18번 소재가 나머지 소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한 반면, 11, 19번 소재는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고, 8, 10, 16번 소재의 경우 1~2회로 드물게 사용되어 소재 활용 면에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수능(1)과 인터넷 수능(2)도 수능특강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인터넷 수능(1),(2) 글의 소재 분석⁵⁾

소재	인수(1) 1~10강	인수(1) 11~20강	인수(2) 1~10강	인수(2) 11~16강	계(%)
1	9	4	0	4	17(7)
2	3	3	4	0	10(4)
3	0	0	3	1	4(2)
4	7	4	4	1	16(7)
5	3	8	4	2	17(7)
6	2	2	0	2	6(2)
7	9	9	7	6	31(13)
8	0	1	2	1	4(2)
9	4	4	6	4	18(7)
10	0	0	2	1	3(1)
11	0	0	1	0	1(0)
12	1	4	2	2	9(4)
13	3	6	2	0	11(4)
14	11	7	18	10	46(19)
15	1	0	2	1	4(2)
16	0	0	0	1	1(0)
17	0	0	2	0	2(1)
18	9	12	15	10	46(19)
19	0	0	0	0	0(0)

5) 표 안의 숫자는 해당 읽기 소재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소재 항목의 숫자는 <표 4>에 제시된 소재목록표의 개별 항목을 지칭한다.

인터넷 수능에 대한 분석에서도 수능특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비해 소재 면에서의 편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된 소재는 역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 14번 소재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수능(1) 1~10강의 경우, 14번 소재의 편중 현상 외에도 개인생활에 관한 소재인 1번이 총 9회(15%) 등장하면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6개 소재인 3, 8, 10, 11, 16, 17, 19번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이를 통해 인터넷 수능(1) 1~10강의 소재 편중 현상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수능(1)의 11~20강의 경우 인터넷 수능에 출제된 총 지문 64개를 통틀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소재가 3, 10, 11, 15, 16, 17, 19번으로 역시 6개(32%)나 된다. 또한 6, 8번 소재의 경우도 1~2회 등장할 뿐이며 대부분의 지문이 5, 7, 17번 소재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표 9>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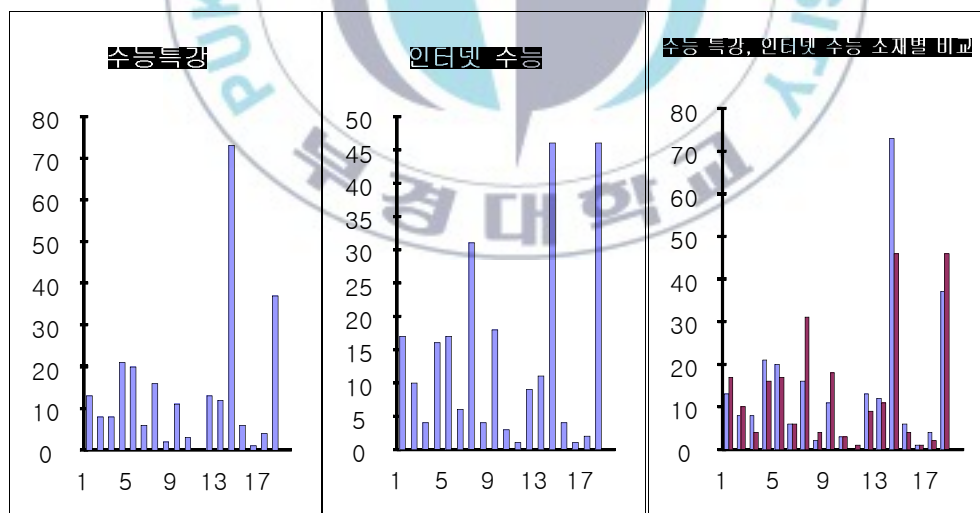
인터넷 수능(2)에서도 역시 소재 면에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9>에 따르면 총 19개의 소재 중 6개(32%)-1, 6, 10, 16, 17, 19번-의 소재를 활용한 지문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고 나머지 소재들도 한 두 회 정도 활용되었을 뿐이다. 오직 1, 7, 14번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된 지문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수능(2) 11~16강에서도 14번 소재의 집중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18번 소재도 14번 소재와 같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소재를 제외한 다른 소재들은 전체 중 1~2회 정도만 등장할 뿐임을 <표 9>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수능의 소재별 빈도를 정리해 보면, 14번과 18번 소재가 동일하게 46회(19%) 활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

으로 7번 소재를 활용한 지문이 많이 등장했다. 그리고 1, 2, 4, 5, 9번 소재도 비교적 활용 빈도가 높은 소재라 할 수 있다. 반면, 11번과 16번 소재는 전체 246지문 중 각각 단 한 번씩 등장했으며, 19번 소재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아 가장 많이 활용된 14번과 18번 소재와는 활용 빈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수능은 전반적으로 글의 소재 면에서 편중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래 <그림 2>는 앞서 분석한 EBS 수능 연계 교재들을 글의 소재 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는 영어 교과서에 대한 글의 소재 비교 분석과 동일하게 앞에 제시된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의 소재 분석표를 토대로 그래프화해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EBS 수능 연계 교재 글의 소재 비교 분석⁶⁾



6) 세로축은 소재별 빈도수이고, 가로축은 각 소재가 나타내고 있는 소재목록표의 항목번호이다. 세 번째 그래프의 앞 쪽 막대는 수능특강의 소재별 빈도수, 뒤 쪽 막대는 인터넷 수능의 소재별 빈도수를 나타낸다.

EBS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2) 모두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소재를 활용한 지문 출제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특히 수능특강의 경우 14번과 18번 소재를 활용한 지문의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인터넷 수능(1), (2)의 경우에는 수능특강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여전히 6, 14, 18번 소재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19번 소재에 대한 활용 빈도는 EBS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과 (2)에서 모두 전무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소재들도 14번 소재의 활용 빈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지문이 수능특강의 경우 255개의 지문이었고, 인터넷 수능(1), (2)를 합하면 246개의 지문임을 감안한다면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2) 모두 소재 편중 현상이 심각함을 이번 비교 분석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4.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EBS 교재의 글의 종류 분석

4.2.1 고등학교 영어 1, 2 교과서에 대한 글의 종류 분석

먼저 영어 1 교과서 9종에 대해 글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영어 1 교과서 글의 종류 분석⁷⁾

종류	금성	능률	두산	민중	중앙	지학	천김	천이	YBM	계(%)
이야기	2	3	3	2	1	5	3	1	2	22(23)
묘사	2	1	1	1	1	0	0	1	0	7(7)
지시	1	2	0	2	2	1	2	2	2	14(15)
설명	5	4	6	7	7	5	5	5	6	50(53)
논쟁	0	0	0	0	0	0	0	1	0	1(1)

<표 10>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등장한 글의 종류는 설명 형식의 글로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야기 형식의 글이 총 25개로 전체 94개의 지문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쟁 형식은 천재(이) 교과서에 단 한번 등장함으로서 영어 1 교과서에서 가장 드물게 볼 수 있는 글의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 1 교과서는 모든 종류의 글이 활용되었지만 고른 분포라 보기는 힘들다.

특히 총 9개의 출판사 중 두산, 지학, 천재(김), YBM 이렇게 4개의 교과서에서는, 단지 세 가지 글의 종류만 활용하여 전체 단원의 본문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표 10>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천재(이) 출판사의 영

7) 표 안의 숫자는 각 읽기 본문에 대한 글의 종류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어 1 교과서는 모든 종류의 글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에서 글의 종류 면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총 9종의 영어 2 교과서 94단원을 글의 종류 면에서 분석한 결과, 영어 2 교과서도 글의 종류 면에서는 고른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표 11>에서 보듯이 영어 2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글의 종류는 설명 형식의 글로서 94개의 지문 중 38개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야기 형식의 글이 34개로 약 36%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다음은 지시로 14회(15%) 등장하고 있다.

<표 11> 영어 2 교과서 글의 종류 분석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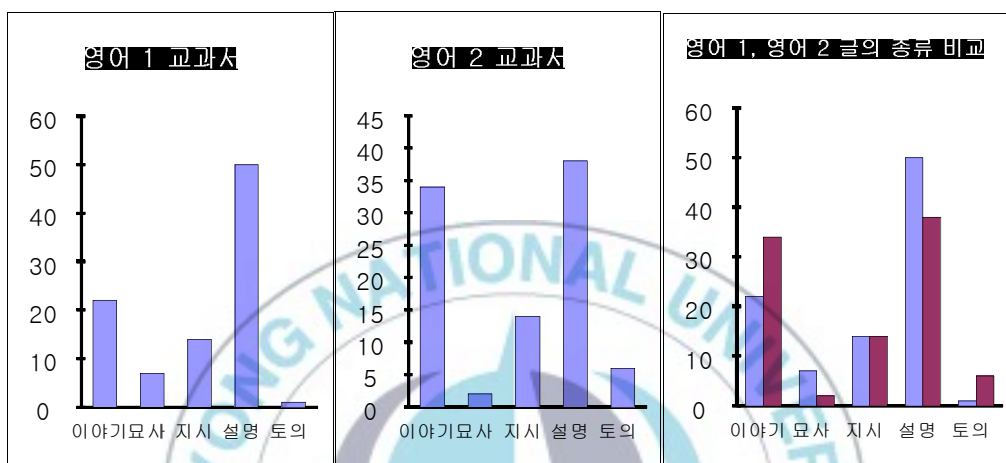
종류	금성	능률	두산	민중	중앙	지학	천김	천이	YBM	계(%)
이야기	3	4	5	4	2	5	3	3	5	34(36)
묘사	0	1	0	1	0	0	0	0	0	2(2)
지시	2	0	1	1	3	1	2	2	2	14(15)
설명	4	4	3	5	5	5	5	4	3	38(40)
논쟁	1	1	1	1	1	0	0	1	0	6(6)

반면 전체 본문의 7%인 6개 본문만이 논쟁 형식을 띠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묘사가 전체 지문 중 단 2회(2%)만 등장하면서 영어 2 교과서에서 가장 적게 등장하는 글의 종류임을 <표 11>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9개의 출판사중 오직 민중 출판사 한 곳만 모든 종류의 글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하였고 나머지 8개 출판사는 각각 4가지 글의 종류만 활용하여 전체 지문을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8) 표 안의 숫자는 각 읽기 본문에 대한 글의 종류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영어 1 교과서와 영어 2 교과서에 대한 글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영어 교과서 글의 종류 비교 분석⁹⁾



글의 종류 면에서 영어 1 교과서와 영어 2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총 5가지 형식의 글의 종류 중에서 설명 형식을 띤 글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야기 형식의 글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영어 1 교과서에서는 토의 형식을 띤 글이, 그리고 영어 2 교과서에서는 묘사 형식을 띤 본문이 가장 적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총 지문 수 94개의 각 교과서 중에서 영어 2 교과서가 영어 1 교과서 보다 글의 종류 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글의 종류를 고르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글의 종류 면에서 두 교과서 모두 고른 분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9) 세 번째 그래프의 앞 쪽 막대는 영어 1 교과서의 글의 종류별 빈도수, 뒤 쪽 막대는 영어 2 교과서의 글의 종류별 빈도수를 나타낸다.

4.2.2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글의 종류 분석

첫째, EBS 수능 연계 교재도 영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글의 종류 분석을 실시했다. 수능 특강에 출제된 총 255개의 지문을 앞서 설명한 글의 종류표를 토대로 전체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표 12> 수능특강 글의 종류 분석¹⁰⁾

종류	1~10강	11~20강	21~30강	테스트편	계(%)
이야기	8	10	1	9	28(11)
묘사	2	4	0	1	7(3)
지시	7	4	3	8	22(9)
설명	69	36	36	57	198(78)
토의	0	0	0	0	0(0)

수능특강의 대부분의 지문은 한 가지 종류의 글에 집중되어 있다. 1~10강, 11~20강, 21~30강, 그리고 테스트편 전체가 설명 형식의 글에 모든 지문이 치우쳐 있음을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약 80% 가량인 198개의 지문이 모두 설명 형식의 글로 출제된 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토의 형식의 경우 수능특강 전체 지문에서 단 한 개의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수능특강 21~30강의 경우 총 5 가지 글의 종류 중에서 단 3 가지인 이야기와 지시, 그리고 설명 형식의 글만 활용되었을 뿐 묘사와 토의 형식을 띤 글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종류 면에서의 편중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은 글의 종류 면에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표 안의 숫자는 각 읽기 본문에 대한 글의 종류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둘째, 또 다른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인터넷 수능(1)과 인터넷 수능(2)의 지문 246개도 수능특강과 동일한 분석 과정을 거쳐 <표 13>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표 13> 인터넷 수능(1),(2) 글의 종류 분석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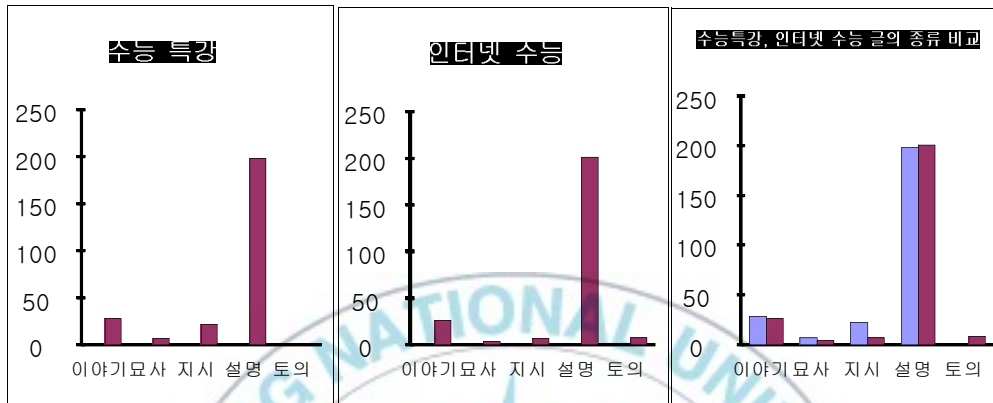
종류	인수(1)1~10강	인수(1)11~20강	인수(2)1~10강	인수(2)11~16강	계(%)
이야기	13	7	3	3	26(11)
묘사	1	1	2	0	4(2)
지시	0	3	2	2	7(3)
설명	42	51	66	40	201(82)
토의	4	2	1	1	8(3)

인터넷 수능(1)과 인터넷 수능(2)의 읽기 지문에서도 특정 종류의 글의 형식에 집중된 현상이 심각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1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수능(1) 1~10강의 경우 출제된 대부분의 지문이 설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인터넷 수능 전체에 걸쳐 볼 수 있는 보편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수능(1)의 1~10강과 인터넷 수능(2)의 11~16강의 경우, 분석 도구에서 밝힌 5 가지 지문 중 각각 지시와 묘사 형식의 글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1)에서는 묘사가, 인터넷 수능(2)에서는 토의가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하여 빈도수에서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수능(2)의 1~10강은 총 74개 중 66개(89%)의 지문이 모두 설명 형식의 지문이며, 11~16강의 경우에도 총 46개의 지문 중 40개(87%)의 지문이 모두 설명 형식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즉, 설명 형식의 지문을 제외하면 한 두 지문만이 인터넷 수능 전체에서

11) 표 안의 숫자는 각 읽기 본문에 대한 글의 종류가 등장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계(%)의 ()는 각 구간에 대한 백분위를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활용되어 글의 종류 면에서 편중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EBS 수능 연계 교재 글의 종류 비교 분석¹²⁾



셋째, 앞서 분석한 EBS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자료를 모두 합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림 4>를 통해, 총 5가지 글의 종류 중에서 설명 형식의 글이 EBS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전체 지문수가 각각 255개와 246개임을 고려한다면 설명 형식의 글에 대한 편중 현상이 EBS 수능 연계 교재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수능특강을 통틀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토의 형식의 지문이 인터넷 수능(1)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4가지 종류의 글만 소개되었던 수능특강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글이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을 통해 소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대신에 수능특강에서 비교적 꽤 자주 등장했던 지시 형식의 글이 인터넷 수능에서는 더 적게 등장했으며, 수능특강에서 가끔 등장했던 묘사 형식의 글이 인터넷 수능(1)과 인터넷 수능(2)에서 훨씬 적게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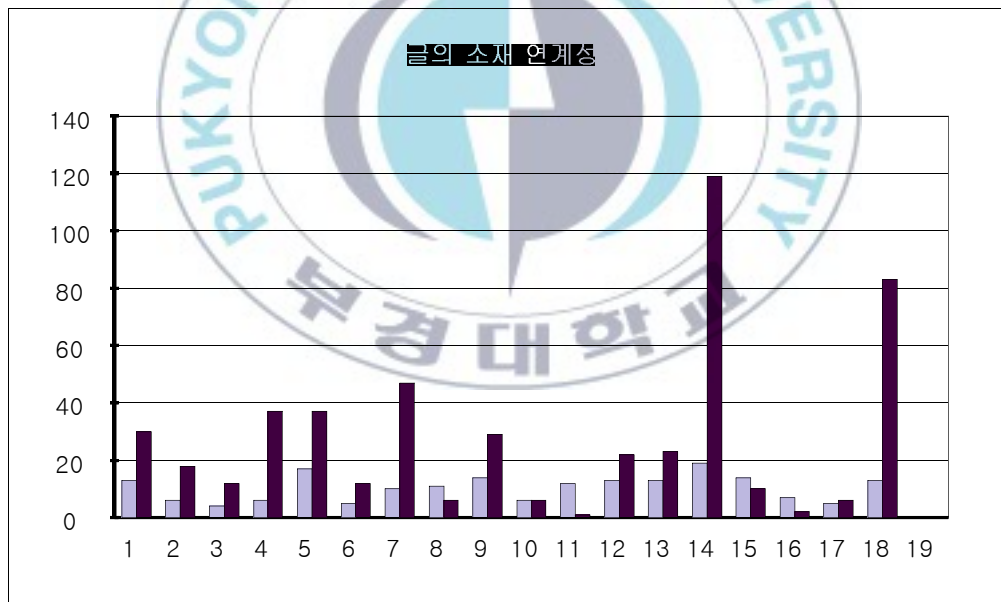
12) 세 번째 그래프의 앞 쪽 막대는 수능특강의 글의 종류별 빈도수, 뒤 쪽 막대는 인터넷 수능의 글의 종류별 빈도수를 나타낸다.

4.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의 연계성

4.3.1 글의 소재 면에서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의 연계성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글의 소재 면에서 함께 비교하여 연계 정도를 알고자 한다. 소재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 글의 소재 연계성¹³⁾



13) 세로축은 소재별 빈도수이고, 가로축은 각 소재가 나타나고 있는 소재목록표의 항목번호이다. 그리고 각 항목별 두 개의 막대기 중 앞의 연한 색의 막대기가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소재별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바로 붙어서 뒤에 나오는 진한 색의 막대기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소재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영어 교과서의 경우 글의 소재 면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9가지의 소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보다는 비교적 다양하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올해 발행된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는 교과서에 비해 읽기 지문이 한두 가지 몇몇 소재인 14번과 18번 소재에 심하게 편중되어 지문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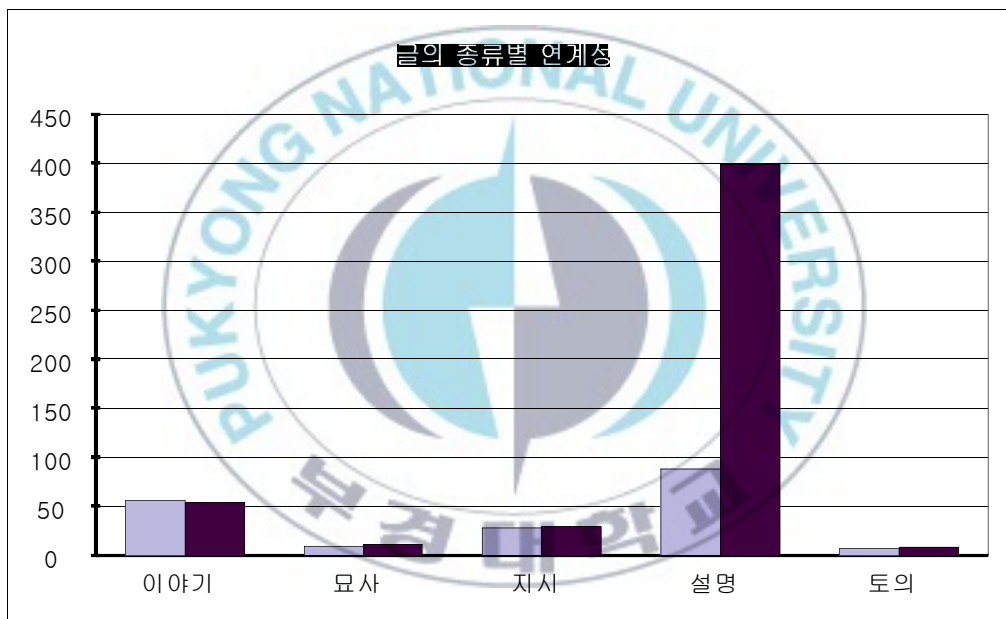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나왔던 11번 소재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BS 수능 연계 교재 총 지문수가 501개로 영어 교과서 총 본문수인 188개보다 약 2.5배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8, 15, 16, 17번 소재는 EBS 수능 연계 교재 보다 영어 교과서에서 활용된 빈도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 사이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미 살펴본 소재 면에서의 편중과 고르지 못한 배분으로 인해 EBS 수능 연계 교재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소재면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 위주로 학습을 충실히 한 학생에게는 이와 전혀 연계되지 않은 다른 소재들을 주로 다루어 출제에 반영하고 있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이 대부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짐작된다.

4.3.2 글의 종류 면에서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의 연계성

앞서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종류 면에서 함께 비교하여 연계 정도를 알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영어 교과서와 EBS 교재 글의 종류 연계성¹⁴⁾



먼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 모두 글의 종류 면에서 고르게 배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확연히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설명 형식의 글이 다른 종류의 글들에 비해 심각하게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

14) 세로축은 종류별 빈도수이다. 그리고 각 항목별 두 개의 막대기 중 앞의 막대기가 교과서의 글의 종류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바로 붙어서 뒤에 나오는 막대기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글의 종류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거의 모든 글이 설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묘사나 토의 형식의 특징을 가진 글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을 뜻한다. 둘째로, 총 분석된 지문의 수나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야기 형태의 글이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교과서에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이야기 형식의 글이 교과서와의 이야기 형식의 글에 비해 매우 드물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EBS 수능 연계 교재는 글의 종류 면에서 교과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자연스러운 연계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글의 종류를 주로 활용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해야 하는 수험생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글 읽기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영어 1, 영어 2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과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연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고등학교 영어 1, 영어 2 교과서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글의 소재를 비교적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의 경우 중복되는 소재가 많고, 한 소재에 편중된 경향을 띄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소재인 과학,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지문이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을 접할 때 독해 및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등학교 영어 1, 영어 2 교과서뿐 아니라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과 인터넷 수능(1), 인터넷 수능(2)도 모두 글의 종류 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경우 전체 문제 수에 비해 한 가지 글의 종류인 설명 형식의 글에 과반수의 지문이 출제되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서문에서 명시했던 다양한 종류의 글 읽기를 통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에 대한 기대 효과가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드러난 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학습할 때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할 때 글의 소재와 글의

종류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연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수험생이 교과서 위주의 정규 영어 학습 이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하게 될 때, 앞서 언급한 차이에서 오는 생소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비록 본 연구가 교육과정 영어 학습 영역 중 읽기 영역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일부 교재를 가지고 분석하였기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영어교과학습을 토대로 한 참된 영어 실력 측정을 위해 글의 소재와 글의 종류 면에서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하고 면밀하게 반영한 수능 연계 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읽기 지문 소재와 종류를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소재나 종류를 주로 활용하여 조금 더 심화된 읽기 자료로 만들어 제시한다면 교재를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학교수업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므로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처음 교육부가 의도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와 학교 모두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교과서 및 EBS 교재>

- 권오량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금성.
- 권오량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금성.
- 김길중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 김길중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지학사.
- 김덕기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 김덕기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김성곤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동아.
- 김성곤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 민찬규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중앙교육.
- 민찬규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중앙교육.
- 신정현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YBM 시사.
- 신정현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YBM 시사.
- 이민호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민중서림.
- 이민호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민중서림.
- 이재영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 이재영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이찬승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1*. 서울: 능률교육.
- 이찬승 외. (2007). *High School English 2*. 서울: 능률교육.
- 이현우 외. (2014). *수능특강*. 서울: 한국방송공사.
- 이희경 외. (2014). *인터넷 수능(2)*. 서울: 한국방송공사.
- 황종배 외. (2014). *인터넷 수능(1)*. 서울: 한국방송공사.

- 교육부. (2007).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외국어(영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08). *제 7차 영어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11). *제 7차 재개정 영어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1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1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도자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14).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영역 학습 안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 (201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 (2014).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비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의 난이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 박영주. (2011). *EBS 수능 영어 독해 교재의 난이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용희. (201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의 읽기 영역에 나타난 소재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효영. (2007).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신정록. (201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영어 독해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독해 지문의 이독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 장유경. (2012).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한 이독성 지수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

- 정보림. (2012). *개정 7차 고등영어 읽기 본문의 난이도 비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 조근호. (2013). *EBS 수능 연계교재와 고교 영어교과서 어휘수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hatia, V. (1993). *Analys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Longman.
- Buck, G. (1988). *Test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Japanes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okyo: JALT Journal, 10, 12-42.
- David, Y. L. (2001). *Genres, Registers, Test Types, Domains, and Styles: Clarifying the Concepts and Navigating A Path Through the BNC Jungle*, Lancaster: Lancaster University Press, 5(3), 37-72.
- Gramley, S., & Pätzold, K. M. (1992). *A Survey of Modern English*. London: Routledge, 14, 37-46.
- Harris, D. P. (1969). *Tes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acGraw Hill.
- Hughes, A. (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3.
- Jung, H. (2008). *The Washback Effects of English Listening Test in Korea CSAT on Secondary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Gwangju: Honam University, 16(3).
- Michael A. A. (1997). *Schema Theory*.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5.
- Paltridge, B. (1996). *Genre, test-type, and the language learning*

- classroom*. Sydney: EFL Journal, 17-34.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rkpatrick, R. (1999). *Text Analysis at Different Levels : Schema Theory, Genre Analysis, Discourse Relations and Reference*. Kumam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Kumamoto, 5(1), 49-66.
- Kathleen, M. (1996). *Washback in Language Testing*. New Jersey: Princeton.
- Kim, D. J., & Oh, K. (2002). *Washback on 12th grade English classes of the English tests within Korean university entrance exam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57(3), 303-329.
- White, R. V. (1986). *Teaching written English*. London: Heinemann.

